

##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지역을 키운다

교사협동조합티움 이사장 황인욱

‘지역’이라는 말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에 따라 나눈 일정한 영역을 말할 뿐인데, 우리는 이 말을 언제나 ‘중앙’이라는 말과 연결하여 그 의미를 떠올린다. 그래서 지역이라는 말이 붙으면 괜히 작아 보이고 초라하게 느껴진다. ‘경제’라고 말할 때와 ‘지역 경제’라고 말할 때, ‘주민’이라는 말을 들을 때와 ‘지역 주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따뜻한 감정과 동시에 무언가 취약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그 지역이라는 말 앞에 ‘폐광’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우리의 감정은 금세 암담함으로 바뀌고 만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좀 달리 규정할 만한 새로운 표현이 생기기 전에는 당분간 우리는 ‘폐광지역’의 ‘지역 주민’으로서 우리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탄광이 없어진 자리에 카지노장이 들어섰으니 ‘카지노 지역’이라는 말이 있을 법하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언제나 ‘폐광지역 4 개시군’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며 ‘카지노 타운’이라는 말보다 ‘폐광 지역’이라는 말의 호소력과 향수에 더 기대는 듯하다. 따라서 ‘카지노 지역’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로 현재로도 앞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함께 지역의 교육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취지의 이 글에서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폐광 지역’으로 보고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폐특법이 제정되던 1995 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았을 때, 아니 그 이전인 1980 년대로 돌아갔을 때도 이 지역은 늘 해결되지 않는 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열악한 교육 환경’, ‘뒤떨어지는 학력’, ‘불투명한 미래’, ‘떠나가는 인재들’. 지역의 교육 문제를 상징하는 이 네 개의 키워드를 폐특법 20 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올려 볼 때, 그 중에서 현재의 지역 상황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그런 점에서 35 년이 흐른 지금에도 지역 교육의 문제는 모양이 변했을 뿐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교육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고 참 많이 쏟아 부었고 참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이 네 개의 악성 키워드는 왜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 1. 지난 10 년간의 ‘학교 살리기’ 노력

동문회관에 가보면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슬로건이 한 쪽 벽에 크게 걸려 있다. 적어도 지난 10 년 동안 우리 지역은 바로 이러한 화두를 붙잡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써온 듯하다. 맞는 말이다. 학교가 살아나면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 그 결과를 물어볼 때도 된 것 같다. 과연 학교는 살아났는가?

### 학교 통폐합 운동

지난 2007 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별 교원배정 방법을 ‘학급수에 의한 배정’에서 ‘학생수에 의한 배정’으로 변경하는 안이 확정되면서, 지역 공교육의 황폐화를 우려한 주민들은 학교 통·폐합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08 년에는 고한여중과 고한여자종합고가 각각 고한중과 고한고로 통합된 데 이어, 2010 년에는 사북여중이 사북중으로, 2013 년에는 사음초등학교가 사북초등학교로 통합되었다. 2013 년 통폐합이 결정된 후 사북초는 기존 사음초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체육관과 도서관은 물론, 돌봄교실, 과학실, 복지실, 컴퓨터실, 회의실, 방송실 등 다양한 특별실 갖추고 운동장도 새로 조성했다. (김영석, “통합 사북초 학교 이전 첫 수업”, 강원일보, 2014.8.26. 21 면)

### 교육 인프라 투자 사업

한편 도 도교육청 강원랜드 등 3 개 기관은 폐광지역 4 개 시·군의 교육환경 개선, 특히 교육 인프라 구축과 경상비 지원을 위해 지난 2008 년부터 2013 년까지 6 년간 도에서 644 억원, 도교육청에서 226 억원, 강원랜드에서 132 억원 등 총 1,002 억원을 투입했다. (김석만·이규호, “폐광지역 교육 개선 6 년간 1,002 억 투입”, 강원일보, 2008.1.21, 1 면) 이 사업을 통해 학교 다목적실 신축 및 교실 냉난방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개선, 학생기숙사 신축, 학교급식시설 개선, 통폐합 학교 시설 및 정보화 구축,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등 지역 교육인프라는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지역장학회의 장학사업

지난 10 년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선군 관내 장학회는 정선장학회 사북장학회 정암장학회 아리장학회 강원랜드복지재단 등 5, 6 개에 달하고 있다. 각종 장학기금만 100 억원 가까이 적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4 년 4 월 (주)동원이 지역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한 21 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사북장학회가 만들어졌다. 사북장학회는 2005 년 3 월 정창화 이사장 체제로 정식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2006 년부터 본격적인 장학사업을 시작했다. 사북장학회는 사북고 입학생중 출신 중학교에서 상위 5 위 이내에 든 경우 고교 재학기간 내내 장학금을 지급하며, 사북고 졸업자 중 서울소재 8 개 명문대학에 합격한 자는 재학기간 중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걸었다.

사북장학회는 2009 년 송재범 이사장 체제에서 기본재산을 21 억 5,000 만원으로 증액하고 고교생 60 만원, 전문대생 140 만원, 4 년제 대학생 200 만원, 명문대생 4 년간 장학금 전액 지급, 사북고 성적우수입학자 입학격려금 200 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수혜폭을 크게 늘렸다.

지역 주민과 단체들의 활발한 기부 활동이 더해지면서 2012 년 사북장학회의 기금은 22 억에 도달했고 그해까지 사북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특기적성 지원금 등에 모두 5 억 9600 여만원의 장학금을 썼다. 사북장학회는 성적우수자 외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예체능 특기자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있다. (방기준, “정선 사북장학회 지역인재 양성 산실”, 강원도민일보, 2012.4.2)

한편, 2001 년 (주)삼탄 정암광업소 폐광시 기업으로부터 6 억원을 기탁받아 설립된 정암장학회 역시 해마다 15 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1,000 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고한 지역 2 개 고교에 보충수업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광희, “고한·사북·남면 장학사업 활기”, 강원일보, 2005.3.2)

### 강원랜드의 지원 사업

강원랜드는 해피스쿨공모 사업을 통해 지난 2008 년부터 2014 년까지 폐광지역 84 개교에 38 억여원의 교육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준호, “2015 강원랜드 해피스쿨’ 지원금 전달식 가져”, 업코리아, 2015.6.12) 또한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 3 년간 태백, 정선, 영월, 삼척 등 강원 폐광지역 4 개 시·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총 19 억 4 천여만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강원랜드에 따르면 전체 장학교육부분 집행 사업비는 2010 년 39 억 8 천여만원, 2011 년 32 억 9 천여만원, 2012 년 25 억 4 천여만원이었다. (배연호, “강원랜드 장학금,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보다 적어”, 연합뉴스, 2013.10.7)

이 밖에도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꿈나무 장학금 등 각종의 장학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각종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지역의 성적 최우수 학생들은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대학까지 무료로 마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자체, 기업, 지역 장학회의 학교 살리기 사업을 통해 최대의 수혜를 받은 것은 바로 지역의 공립학교들이다.

## 2. 지난 10 년간의 ‘지역 학교’의 변화상

### 학교의 교육 복지

2011 학년도 전국 장학금 수혜학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수령액은 182,866 원이었던 반면, 강원도는 224,376 원, 정선군은 272,481 원이었다. 같은 기간 사북중학교에서는 6 명에게 1,900,000 만원을 지급하여 수혜학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316,667 원으로 전국 평균, 강원도 평균, 정선군 평균을 모두 웃돌았다.

2012 학년도 전국 장학금 수혜학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수령액은 206,846 원이었고, 강원도는 193,597 원, 정선군은 255,220 원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사북중학교의 경우 장학금 총액은 3,450,000 원으로 증가했으나 이를 25 명에게 지급하여 혜택 받는 학생의 수를 늘이는 정책으로 전환한 듯 보인다.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자 비율은 10%를 넘어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2014 학년도에도 전국 장학금 수혜학생 1 인당 평균 장학금 수령액은 248,925 원, 강원도는 268,067 원, 정선군은 444,017 원이었다. 같은 기간 사북중학교는 20 명에게 총 2,700,000 원을 지급, 수혜학생 1 인당 장학금 액수를 줄이는 대신, 수혜자는 대폭 늘이는 정책 경향을 강화하였다.

〈표 1〉 사북중학교 장학금 지급 현황 비교 (2013)

(단위: 명, 원)

2013학년도											
구 분	장학금					학비지원					합 계
	1분기 (3~5월)	2분기 (6~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2월)	계	1분기 (3~5월)	2분기 (6~8월)	3분기 (9~11월)	4분기 (12~2월)	계	
인 원	3	8	0	8	19	0	0	0	0	0	19
금 액	300,000	800,000	0	800,000	1,900,000	0	0	0	0	0	1,900,000
정선군 장학금수혜학생1인당평균장학금(원)											218,750
강원도 장학금수혜학생1인당평균장학금(원)											202,912
전국 장학금수혜학생1인당평균장학금(원)											200,329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년도에 사북고에서는 매 분기별로 76 명씩 1 인당 평균 194,476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이밖에 연인원 62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1 인당 평균 579,297 원을 지급하였다. 2012 학년도 전국 고등학생 중 장학금 수혜학생 1 인당 평균장학금은 376,396 원이었고, 강원도는 306,431 원, 정선군은 515,559 원이었다.

2014 학년도 전국 고등학생 중 장학금 수혜학생 1 인당 평균장학금은 836,011 원이었고, 강원도는 624,132 원, 정선군은 621,521 원이었었는데, 같은 기간 사북고에서는 장학금으로 79 명에게

73,733,400 원을 지급하여 1 인당 평균장학금은 933,334 원이었다. 이밖에, 연인원 28 명의 학생에게 학비지원금 21,390,800 원을 지급하여 1 인당 평균학비지원금은 763,957 원에 달했다. 이것은 전국 평균과 강원도 평균, 정선군 평균을 모두 훨씬 웃도는 수치다.

〈표 2〉 사북고등학교 장학금 지급 현황 (2014)

(단위: 명, 원)

구 분	2014학년도		합 계
	장학금	학비지원	
인 원	79	28	107
금 액	73,733,400	21,390,800	95,124,200
정선군 장학금수혜학생 1인당평균장학금(원)			621,521
강원도 장학금수혜학생 1인당평균장학금(원)			624,132
전국 장학금수혜학생 1인당평균장학금(원)			836,011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발전 기금

사북중학교의 경우, 2011 학년도에는 학교 발전 기금으로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금 510 만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 활동 지원금으로 600 만원, 기타 824 만원이 접수되어 총 1935 만원 중 약 706 만원이 집행되었다. 2012 학년도부터 2014 학년 사이에도 같은 명목으로 매년 약 1,500 만원 가량의 발전 기금이 접수되었고 평균 879 만원이 지출되었다. 2011 학년도 학생 1 인당 발전기금은 89,195 원으로 전국 평균치 20,620 원의 4 배가 넘었고, 2012 학년도는 64,135 원, 2013 학년도 61,582 원, 2014 학년도 68,481 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표 3〉 사북중학교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및 지출 현황 (2014)

(단위: 원)

2014학년도							
구 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기타 (이자+이월 금 등)	합 계
접 수	접수건수	0	0	2	3		5
	금 액	0	0	5,500,000	1,000,000	9,045,280	15,545,280
지 출	지출건수	0	0	7	5		12
	금 액	0	0	10,553,200	2,700,000		13,253,200
정선군 학생 1인당 발전기금							77,530
강원도 학생 1인당 발전기금							29,771
전국 학생 1인당 발전기금							30,307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사북고등학교의 경우 2012 학년도 학생 1 인당 발전기금은 420,006 원으로 전국 평균치 54,059 원의 약 8 배에 가까웠고, 2013 학년도(1 인당 평균 310,248 원)에 이어 2014 학년도(1 인당 평균 86,881 원)에도 대폭 줄어들긴 했으나 역시 전국과 강원도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치다.

〈표 4〉 사북고등학교 학교 발전기금 접수 및 지출 현황 (2014)

(단위: 원)

2014학년도							
구 분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	기타 (미자+이월 금 등)	합 계
접 수	접수건수	0	0	1	10		11
	금 액	0	0	500,000	6,903,890	8,321,620	15,725,510
지 출	지출건수	0	0	0	13		13
	금 액	0	0	0	6,903,890		6,903,890
정선군 학생 1인당 발전기금							125,345
강원도 학생 1인당 발전기금							78,146
전국 학생 1인당 발전기금							58,522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수혜 학생 1 인당 장학금 수혜 액수와 장학금 수혜 비율, 학생 1 인당 학교 발전 기금 등 여러 수치를 종합해 볼 때, 사북중학교와 사북고등학교의 학생 복지 예산과 교육 투자액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교육 인프라와 장학금 등 다양한 환경 개선 노력에 따라 지역 학교의 경쟁력은 어떻게 변했을까? 2012 년과 2014 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역의 사북중학교가 얻은 결과를 관내 정선중학교와 경기도의 공립 J 중학교와 비교해 보면 〈표 5〉, 〈표 6〉과 같다. 과목별로 보통학력 이상의 성취도를 얻은 학생의 비율만 비교할 때, 사북중학교 학생들은 경기도의 같은 공립중학교 학생은 물론, 관내 정선중학교 학생들 보다도 좋지 않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의 비율도 높았다. 특히 수학 과목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졌다.

〈표 5〉 사북중학교와 정선중학교 및 경기도 J 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교(2012)

교과	보통학력이상 비율			기초학력미달 비율		
	사북중	정선중	J 중	사북중	정선중	J 중
국어	58.2	83.7	81.5	0.0	0.6	0.9
수학	38.8	60.4	63.1	13.4	2.5	3.3
영어	47.8	68.6	76.4	3.0	3.1	1.8

응시인원	67(100%)	159(99.4%)	455(99.6%)	67(100%)	159(99.4%)	455(99.6%)
------	----------	------------	------------	----------	------------	------------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표 6〉 사북중학교와 정선중학교 및 경기도 J중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교(2014)

교과	보통학력이상 비율			기초학력미달 비율		
	사북중	정선중	J 중	사북중	정선중	J 중
국어	88.0	84.0	90.1	0.0	4.0	1.3
수학	42.7	51.4	70.4	9.3	11.3	5.6
영어	68.0	63.3	80.8	0.0	4.7	3.3
응시인원	75(97.4%)	150(100%)	395(99.2%)	75(97.4%)	150(100%)	395(99.2%)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2014 학년도에 사북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이 교내 평가를 통해 보여준 과목별 학업 성취도를 타 학교와 비교해보면 〈표 7〉와 같다. 학교별로 평가 항목과 난이도가 서로 다른 것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사북중학교 학생들이 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보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성취도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상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로 적은 반면,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으며, 수학 같은 과목에서는 1 학기와 2 학기 모두 과반수를 넘는 51.5%와 53.8%의 학생들이 A, B, C, D, E 의 평가 등급 중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표 7〉 사북중학교 1 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별 학업성취도 비교 (2014 학년도)

1 학년 (2014 학년도)								
과목	1 학기				2 학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국어	22.7	21.3	15.2	17.4	15.4	23.1	21.5	22.2
수학	9.1	13.8	51.5	47.1	4.6	17.0	53.8	42.7
영어	22.7	15.3	30.3	34.8	10.8	17.5	40.0	36.8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중 2 학년 학생의 과목별 학업 성취도를 타 지역 공립 중학교와 비교해 보아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8〉) 2 학년 학생들도 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보다 성취도 편차가 심했다. 특히, 2013 학년도 1 학기의 수학 과목의 경우 최하등급 E 를 받은 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의 비율은 무려 63%에 달했다. 사북중 3 학년 학생들도 최상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고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표 9〉)

〈표 8〉 사북중학교 2 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별 학업성취도 비교 (2013 학년도)

2 학년 (2013 학년도)								
과목	1 학기				2 학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국어	9.9	25.4	37.0	21.9	19.2	28.8	29.5	16.2
수학	12.3	11.4	63.0	47.8	12.8	15.4	50.0	47.7
영어	11.1	14.7	46.9	41.3	19.2	18.2	39.7	36.9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표 9〉 사북중학교 3 학년 학생들의 주요 과목별 학업성취도 비교 (2014 학년도)

3 학년 (2014 학년도)								
과목	1 학기				2 학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사북중	J 중
국어	19.2	24.1	30.8	22.6	17.7	19.4	24.1	26.8
수학	15.4	16.1	59.0	47.5	19.0	10.2	54.4	51.6
영어	16.7	24.4	38.5	36.9	16.5	20.3	35.4	37.7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취도는 어떨까? 2014 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사북고등학교가 얻은 결과를 관내 정선고등학교와 경기도의 평준화 지역 공립 B 고등학교와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과목별로 보통학력 이상의 성취도를 얻은 학생의 비율만 비교할 때, 사북고 학생들도 관내 정선고 학생들이나 경기도의 B 공립고 학생 보다 좋지 않은 성취도를 보였으며,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영어 과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표 10〉 사북고와 정선고, 경기도 B 공립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교(2014)

교과	보통학력이상 비율			기초학력미달 비율		
	사북고	정선고	B 고	사북고	정선고	B 고
국어	81.7	89.4	95.2	0.0	0.8	0.5
수학	73.3	92.7	94.0	5.0	0.8	1.7
영어	65.0	93.5	95.9	11.7	1.6	1.9
응시인원	54(100.0%)	111(98.2%)	450(99.3%)	54(100.0%)	111(98.2%)	450(99.3%)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한편, 2014 학년도에 사북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이 교내 평가를 통해 보인 과목별 학업 성취도를 타 학교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표 11>과 같다. 역시 학교별로 평가 항목과 난이도가 서로 다르겠지만, 사북고등학교 학생들의 과목별 성취도를 타 지역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과 비교하면, 최상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대체로 적은 반면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어,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거의 과반수에 육박하거나 넘어서고 있으며, 2014 학년도 1 학기 수학 I 과목에서는 5 단계 절대평가 등급 중 최하등급 E 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이 놀랍게도 무려 76.2%에 달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사북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의 과목별 학업성취도 비교(2014 학년도)**

고등학교 1 학년 (2014 학년도)								
과목	1 학기				2 학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별 분포 비율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최상등급(A)		최하등급(E)	
	사북고	B 고	사북고	B 고	사북고	B 고	사북고	B 고
국어	4.8	12.6	42.9	21.5	0.0	27.1	50.8	17.0
수학	4.8	27.6	76.2	23.1	9.5	18.2	46.0	18.2
영어	6.3	10.0	55.6	57.2	6.3	15.8	54.0	49.5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 3. 우리의 ‘학교’는 살아났는가?

‘우리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두가 애써 왔는데 결국 우리가 가장 기대하던 지역 학교의 경쟁력, 혹은 지역 학생들의 실력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많은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역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타 지역 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지역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의 학교들은 별다른 경쟁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각은 이와 다를까? 2012 년 (재)3.3 기념사업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지역 주민 교육의식 조사>에서 학부모의 84%와 중고생의 90%는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살려주지 못한다”고 했으며, 중고생의 35%는 학교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는 곳”이라고 답했다. 충격적인 결과다.

가만히 놓아두었다면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을 겨우 살려 놓았다는 의미에서라면 학교가 살았다고 하겠지만,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저 슬로건이 기대하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학교는 ‘살아나지 않았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가 교육을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지역 교육 문제의 다양한 영역과 층위가 있는데도, 그 동안 지나치게 학교 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 관점으로만 접근하면서, 정작 중요한 교육의 질을 개선하거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 일은 소홀히 해 온 것이다. 우리는 교육의 구체성을 세심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과 형식에만 너무 집중했다. 교육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역 학교는 이제 더 이상 남부끄러운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지역 교육은 제자리 걸음이고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학교의 질은 건물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과 뒷받침하는 부모의 질이다. 남다른 학교는 남다른 교육철학이고 남다른 교육 방법론이고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라는 애매한 단어, 모호한 틀에 담고 있었던 진정한 가치였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슬로건에 모두 공감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학교’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학교’는 지역 교육을 상징하는 말일 뿐인데, 우리는 ‘학교’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학교’를 떠올린다. 내가 배우고 졸업했던 각자의 ‘우리 학교’ 말이다. 그러나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슬로건에서 학교가 뜻하는 것은 사실 교육의 질이고 경쟁력이다. 그것이 사북초든 증산초든, 사북고든 고한고든, 지금은 없어진 사음초든 사북여중이든, 앞으로 생겨날 어떤 학교든,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제발 보란 듯이 경쟁력을 갖춰주기를 기대한 것이다. 그래서 쏟아 부었고 그래서 뜯어 고쳤고 그래서 부시고 합쳤다. 그런데 왜 지역의 교육은 살아나지 않는 것일까?

만일 어떤 대통령이 “지역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치면서,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이 나고 자란 ‘그 지역’만 살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지역에서 교육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외치면서 모두가 ‘내 학교’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저버리게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우리가 살려야 할 ‘지역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그 학교는 현재 존재할 수도 있고, 한 때 존재하다가 모두의 무관심 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금기를 깨고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가꾸어야 할 교육의 터전은 “특정 공립학교”가 아니다. 아니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던 슬로건이 추구했던 본래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학교”가 “교육”을 대체할 수 없고, 더욱이 지역의 미래가 걸린 “지역 교육”의 비전을 “공교육”, 나아가 “특정 공립학교”의 틀 안으로만 가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지역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래서 지역이 거기에 희망을 걸어 볼 수 있다면, 누구든 어디든 가리지 않고 좋은 교사와 열정적인 학생을 찾아내고 돌보고 키워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는 바로 지난 십 년간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교육의 화두, “학교가 살아야...”라는 그 애매한 화두를 교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금기라고 해도 좋다. 언제나 금기에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이니까. 오래 묵어서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은 이 슬로건을 좀더 명확하게 고쳐보자.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인재를 키워야 지역이 산다.” 어떤가? 적어도 이런 슬로건이라면 지역 주민으로서 ‘학교’라는 말이 주는 편견에 갇히지도 않고, 동문 이기주의나 학교 이기주의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공립학교면 어떻게 사립학교면 어떻게 주민이 세우고 이끌어가는 민립학교면 또 어떤가?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여 지역의 미래 전망을 밝히는 데 기여한다면, 왜 이런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금기시하느냐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를 키워야 지역이 산다.”라는 슬로건이라면, 열린 마음으로 좀더 다른 대안까지도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생각과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교육은 바뀌지 않는다. 반대로 철학과 방법론이 다르면 허름한 건물에서도, 인적이 드문 오지에서도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지는 법이다. 자동차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고급 사양으로 구비해 놓았는데 정작 운전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면, 꿈에 그리던 멋진 드라이브의 광경을 그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 십 년간 지역 교육을 위해 매달려왔던 모습을 좋은 자동차를 장만하는 일에 빚대어 생각해 보자. 좋은 자동차를 장만하느라 정말 모두가 애썼다. 그것만으로 장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운전을 배우거나 좋은 운전기사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라서 당장 차를 몰아야 한다면, 우선 좋은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신 ‘운전사 마음대로’는 안 된다. 그것은 목적지, 즉 지역이 나아갈 방향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 운전대를 잡는 일이다. 지역 경제의 주인이 뜨내기 장사꾼들이 아니듯이, 지역 교육의 주체는 결국 지역 주민이다.

#### 4. 우리의 ‘지역’은 살아났는가?

학교가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달라졌는가? 학교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래서 지역도 살아나기 힘들었던 모양이다. 과연 우리 지역은 지난 몇 년 동안 더 나아졌는가? 우리는 모두 이 지역에

오래도록 머물러 살며 배우고 사랑하고 싶은가? 각종 지표는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로 지역 이탈과 인재 유출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성적이 우수한 관내 초·중생의 90% 이상이 고교는 외지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인재 양성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고한·사북의 교육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강원랜드 직원 500 명 가까이가 태백에 거주지를 마련, 이 곳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반면 관내 초교에 다니는 강원랜드 직원 자녀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불과한 실정이다. (김광희, “초·중생 상위 90%, 고교는 외지로” 2004.8.20, 강원일보)

우리 지역은 폐광에 따른 지역경제 쇠락으로 인해 오랫동안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이에 따라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도 악화되다 보니,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찾아 주민 학생이 외지로 빠져나가 학교가 더욱 황폐화하고 다시 지역이 활력을 잃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sup>1</sup>

2008 년 고교 원서접수 결과 지역 중학교에서 학교별로 10~30%가량의 학생이 강릉이나 원주 쪽 명문 고교에 입학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북여중의 경우 졸업생 43 명 중 8 명이, 사북중은 30 명 중 8 명, 나전중도 27 명 중 7 명이 강릉고나 강릉여고 강일여고 강원예술고 등 타 지역 학교 입학 신청했다. 2007 년보다 외지 희망 비율이 10%가량 늘어났으며 특기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었다. 이 같은 외지 진출 추세 속에 정선지역 8 개 고교의 미달 규모는 128 명으로 타 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재일, “정선 우수학생 지역 떠난다”, 강원일보 2008.12.8)

사북장학회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파격적인 장학금 지급 정책을 내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지역을 떠나는 우수한 인재들을 하나라도 붙잡고, 새로운 인재를 한 명이라도 유치하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이다.<sup>2</sup> 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지역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다.<sup>3</sup>

---

<sup>1</sup> "인재의 조기 이탈은 무엇보다 열악한 교육여건에서 비롯된다. ... 특히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학생 수는 1989 년 8 만 5,000 여 명에서 2005 년 1 만 9,000 여 명으로 78%가 급감했다. 이 기간에 59 개교가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았다. 지금도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지속된다." ("사실 : 지역인재 조기 이탈 '강원도 미래 없다', 강원일보, 2008.9.17, 7 면)

<sup>2</sup> "이 같은 파격적인 장학금 지급안을 마련한 배경에 관해서 사북장학회 측은 대학 입시 제도 변경으로 지역 중고교생들의 외지 유출이 심각하다고 판단, 지역 및 인접지역 학생들의 유입을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류재일, “사북장학회 수혜폭 확대...올해부터 인센티브 지급 등”, 강원일보 2009.1.28, 21 면)

<sup>3</sup> 사북장학회가 내세운 장학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주요 명문대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으며, 장학회 재정 고갈에 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사북장학회에서는 주요 명문대학 입학생 중 장학금 대상자 규정과 사북고 성적 우수 신입생에 대한 지급 규정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선 관내 장학회의 활동이 단순히 학비전달 차원에서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장학회가 지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광희, “뉴스 플러스 : 시·군 장학사업 정착”, 강원일보, 2006.2.13)

정선 지역 내 각종 장학회의 기금이 100 억원을 육박하고 있으나 운영방식은 단순 장학금 지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 장학회는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및 우수인재 육성보다는 이자 수익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사북장학회는 사북고 졸업생이 주요 명문대학에 합격할 경우 재학기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운영안을 마련했으나 수혜대상은 한해 평균 1~2 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수혜대상이 적은 것은 지역출신 성적우수 중학생 상당수가 지역고를 외면하고 타지역으로 진학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학회 설립취지에 맞는 우수인재를 지역고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우수인재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주거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비 지원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광희, “장학사업 기금만 많으면 뭐하냐”, 강원일보, 2007.6.5)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여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데는 지역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기업체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sup>4</sup>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 의식이 고취되고 나아가 외지에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도

---

2008년에는 4 년간 전액 장학금의 수혜 대상을 “사북지역 고교 출신자 가운데 서울대 연·고대 등 전국 대학평가 10 위권내에 입학한 자”로 확대했다가, 2011년에는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사북고 2년 이상 재학 졸업자로서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고려대에 합격한 자”로 축소하였다. 사북고 성적우수 입학자에 대한 장학금 규정도 종종 변경되었다.

4 “청년인구가 넘쳐야 그 지역의 성장 역동성이 커진다. 당국이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모으지만 여전히 한계다. … 강원도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 유출도 구경만 할 일은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청년인구 격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 강원일보, 2010.12.23.)

“‘떠나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교육 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자체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 … 유아교육, 영어캠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도 가능하다. 학생 유출이 계속되면 지역도 없다는 의식을 공유해야 한다.” (‘사설 : 지역인재 조기 이탈 ‘강원도 미래 없다’’, 강원일보, 2008.9.17., 7 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서 자녀를 초중고등학교에 진학시켜야 하는 학부모 관점으로 볼 때,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지역의 교육 기관이 만족스러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 학생과 학부모의 지역 이탈 현상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표 12〉과 〈그림 1〉에서 보듯이 지역의 사북중학교를 보더라도 최근까지도 학생의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현상이 지속되는 추세이며 강원도 평균과 비교할 때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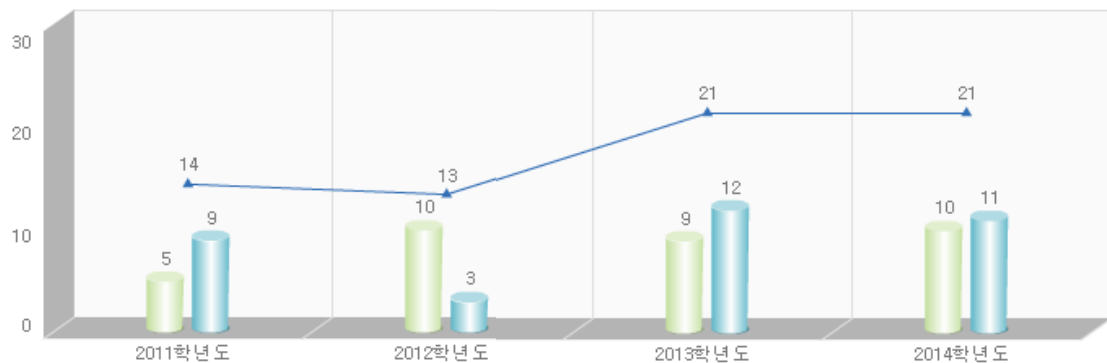
〈표 12〉 사북중학교 학생 전입 전출 현황 (2011~2014)

(단위 : 명)

학년	2011 학년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 학년	1	2	7	1	2	6	5	4
2 학년	2	4	0	1	4	5	3	5
3 학년	2	3	3	1	3	1	2	2
계	5	9	10	3	9	12	10	11
총학생수	217		223		248		227	
비율	2.3%	4.1%	4.5%	1.3%	3.6%	4.8%	4.4%	4.8%
강원도	3.6%	3.4%	3.2%	3.4%	2.8%	3.0%	2.7%	2.9%
전국	3.3%	3.3%	2.9%	2.9%	2.6%	2.7%	2.6%	2.6%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그림 1〉 사북중학교 학생 전입 전출 추이 (2011~2014)



사북초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2012 년 사음초 학생들이 대거 전입해 온 것을 예외로 생각하면, 매년 전입보다 전출이 많았다. (〈그림 2〉) 사북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2013 년 257 명, 2014 년 252 명으로 점점 줄다가 2015 년 현재 근래 들어 가장 적은 236 명이 되었다. 특히 학급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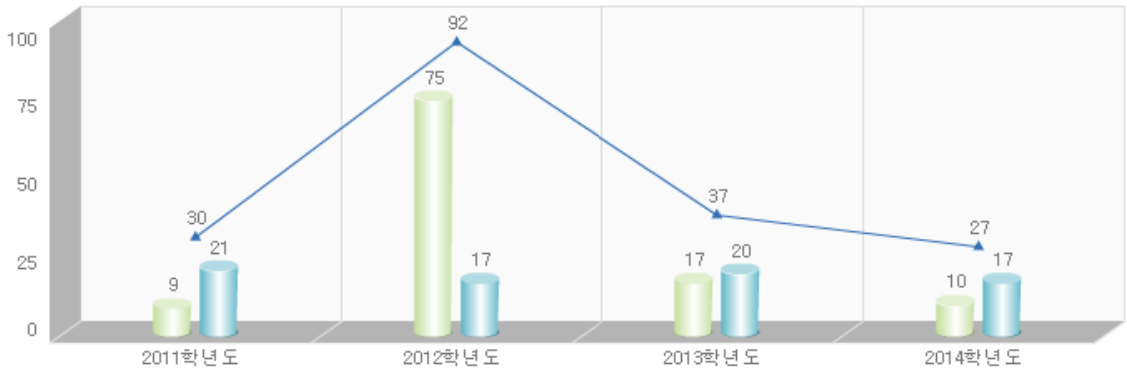
학생수가 많이 줄었는데, 예를 들어 1 학년 학급당 학생수는 17.5 명으로 전국 평균 23.7 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표 13〉)

〈표 13〉 사북초등학교 학생 전입 전출 현황 (2011~2014)

(단위 : 명)

학년	2011 학년도		2012 학년도		2013 학년도		2014 학년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입	전출
1 학년	0	3	18	2	1	0	1	1
2 학년	1	5	15	6	4	7	1	4
3 학년	2	4	13	1	1	2	0	1
4 학년	2	3	14	1	4	4	2	4
5 학년	1	5	14	4	3	2	6	5
6 학년	3	1	1	3	4	5	0	2
계	9	21	75	17	17	20	10	17
총학생수	255		227		257		252	

출처 : 학교알리미(초중등 교육 정보 공시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



사북고 재학생 수는 2013 학년도 183 명(일반 173, 정보기술과 10)이었고, 2014 학년도부터 정보기술과가 제외되어 총 181 명, 2015 학년도 현재 총 183 명이 재학중이다.

이상의 여러 지표를 종합해 볼 때, 명문 대학 진학자들에 대한 사후 포상 방식의 장학 사업으로 지역 주민 학생들의 외지 유출을 막아내거나 인접 지역 주민 학생들을 유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 동안 지역 교육을 살리기 위한 지역 사회의 오랜 고민과 노력을 돌아볼 때, 지역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하는 어떠한 지원 사업도 장기적인 영향력을 못 가진 단발성 사업에

그칠 뿐, 현상을 타파하거나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sup>5</sup>

## 5. '지역.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화두

이제 우리는 진지하고도 냉정하게 '학교 살리기'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목표 의식에서 벗어나 '지역 인재 양성 교육'이라는 구체적인 비전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교육 주체의 정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향해 다시 열정을 쏟아야 한다. 분명히 해 둘 것은, 우리의 초점은 막연한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이며, '인재'가 아니라 '지역 인재'이고, '주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라는 점이다.

### '교육'이 아니라 '지역 교육'이다. - 교육의 목표와 주체

지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힘을 쏟아야 할 교육은 '지역 교육'이다.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교육의 '목표'가 그저 개인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지역 교육'이고, 교육의 '주체'가 그저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자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공유한 가운데 지역 주민의 주도 아래 진행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지역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누구나 '지역 교육'을 강조해 왔지만 이러한 '지역'의 의미를 놓치고 그냥 교육의 일반론으로 접근했으며, 심지어 지역 교육의 목표를 개인의 사회적 성공과 구분하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 교육 문제에 관한 지역 주민의 역할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누가 이 일에 절실히 나서겠는가? 발령지에 부임해 왔다 떠나갈 공교육의 교사들인가, 아니면 지역에 별 이해관계가 없이 교육 그 자체에 뜻을 둔 고명하신 교육자들인가 혹은 계약에 따라 시작하고 계약이 끝나면 마치는 외부 전문가들이겠는가?

지역 교육을 지역의 미래와 결부시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주체는 지역 주민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지역 교육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태양이 끌어 당기지 않으면 지구는 더 이상 돌지 않는다. 결국 지역 주민의 굳건한 중심을 지키고 지속적인 전망을 보여 줄 수 있을 때 유능한 교사 자원도 지역 교육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 인재가 아니라 '지역 인재'다. - 교육의 대상

---

<sup>5</sup> 2012년 <교육의식 조사>에서 응답 주민의 95%가 "지역에서 인재가 빠져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3.3 기념사업회, <주민초청 연속토론회 평가 보고서>, 2012, p.7)



우리가 찾고 키워야 할 대상은 일반적인 의미의 '인재'가 아니라 특수한 의미를 가진 '지역 인재'다. 이것은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극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 교육도 아니고, 단순한 학력 신장을 목표로 한 교육과도 다르다. 그 개인의 안중에 지역이 없는데도 단지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사회의 공적 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성공을 돕는다면 그것은 자선 사업일 뿐이다. 우리가 아낌 없이 투자해서 양성해야 할 '대상'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개인적 성공을 지역의 발전과 연계할 줄 아는 '지역 인재'이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주민의 손으로 양성되고, 향후 지역을 위해서 기여하는 인재라는 의미에서 '지역 인재'는 우리가 키워낼 교육의 대상을 나타낸다. 진정한 지역 인재는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되고 '양성'되는 것이다. 굳이 '지역 인재 양성'이라고 강조해서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지역의 비전을 함께 할 진정한 지역 인재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 **장학 사업이 아니라 '지역 장학 사업'이다. - 장학 사업의 방향**

우리 지역에는 꽤 많은 돈이 '장학' 또는 '교육'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돌아다닌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대해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지역의 인재, 곧 우리의 미래를 가꾸는 데 쓰려고 어렵게 만든 공적 기금이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 장학회가 이런 미래 비전이 없이 단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만 사업을 진행한다면, 장학회로서 문제는 없지만 굳이 '지역장학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돈을 써야 하지만 그것이 지역 장학사업의 주된 목적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일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의 범주에 속한다.

지역의 장학 기금을 단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우등상 주듯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보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든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든 상관없이, 본질은 '포상금'이다. 이런 포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승리자가 쟁취한 전리품일 뿐이다.

지역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면 어쨌든 향토 장학사업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짧은 생각이다. 출신 여부를 떠나 소속감이 더 중요하며, 결과에 대한 '사후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전 투자'가 지역 장학사업의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 그런데 이른바 '주요 대학' 입학부터 졸업까지 몇몇 개인들에게 투여하는 돈에 비해 그런 돈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다수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빗나간 장학사업에 대한 자기 위안으로 들린다. 객관적 기준도 모호한 '주요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든 진학시키기만 하면 지역 장학 단체로부터 엄청난 혜택이 쏟아지는데, 지역의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하면서 자녀들을 지역 인재로 키우겠다고 우직스레 나설 부모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전공과 적성에 맞지 않는 ‘주요 대학’의 ‘아무 학과’ 합격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자기의 꿈을 찾아 ‘아무 대학’의 ‘주요 학과’에 소신 지원하는 바보 같은 학생들의 눈물은 왜 닦아주지 않는가?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교육장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해 보겠다고 교육협동조합을 만들고, 능력있는 외부 교사들을 어렵게 하나둘 불러 모아가며 몇 년째 애를 쓰고 있지만,<sup>6</sup> 이런 일을 ‘극성 맞은’ 일부 학부모들의 자기들만의 리그로 치부하기도 한다. 정말로 훗날 지역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학생들이 눈앞에서 배출되고 있는데도,<sup>7</sup> 마치 그것이 이기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학원 사교육과 똑같은 양 평하하며, 지역이 왜 특정 개인들을 지원해야 하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도 있다. 지역의 귀한 공적 자금이 이곳 저곳에서 이상한 방식으로 소비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정작 감시도 반성도 없이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고 눈치만 보는 사이, 야속하게도 지역 교육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아까운 시간과 계기들이 허비되고, 교사와 부모 등 당사자들이 감당해야 할 짐은 점점 무거워져만 가고 있다.<sup>8</sup> 지역의 교육을 고민한다면, 반드시 지역 주민과

---

<sup>6</sup> “2011년 초에 지역의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작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지역 출신 인문학 교사와 아이들이 모여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지역학생포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원장학회와 사북초중고 총동문회가 이 모임을 후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인재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교사들과 뜻있는 부모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고, 당시까지 단순히 교과 따라잡기 일변도였던 지역 교육은 인문학, 생각하는 수학, 주제연구, 로봇 프로그래밍 등 미래 지향적인 커리큘럼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4년 간의 험겨운 노력 끝에 2014년 4월, 드디어 우리 주민 학부모들은 이러한 흐름을 굳건히 지키고 이어가기 위해 교육협동조합 <천 개의 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역 교육 신문 <즈문소리>, 2015.5.16. 창간호, p.8)

<sup>7</sup> “사북중학교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좋지 않은 교육 환경과 사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면서 자연스레 지역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동문회관에서 열린 미래 인재 학생 포럼에서 공부하면서 사북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내가 성장한 이 지역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지역의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는,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분명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앞으로 후배들이 남다른 길을 걸으면서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아직 새내기 대학생일 뿐이지만, 사북에서의 성장 경험은 제가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사북은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힘쓰는 훌륭한 지역입니다. 제가 그 흐름의 시작점에 있다는 것을 무겁게 느끼고 제 삶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주호, “꿈을 향한 공부”, 지역 교육 신문 <즈문소리>, 2015.5.16. 창간호, p.5)

<sup>8</sup> “지역의 아이들도 대도시의 아이들과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대도시의 과잉교육 따라잡기나, 입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교육을 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기성세대가 중시했던 가치관과 인생관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우리는 아이들이 장차 살아갈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융합적 사고와 관용의 정신을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민교육협동조합 <천 개의 숨>이 청소년 인문학, 토론하는 수학, 주제 연구 등 창의적인 활동을 끝까지 뒷받침해주려고 애쓰는 이유이고 장차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협동조합 학교를 세우려고 꿈꾸는 이유입니다. 지역의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지역 자치단체와 사회단체, 장학회와 지역 기업들이 ‘학교 살리기’가 아닌 ‘지역 교육 살리기’를 위해 이제 어디에 힘을 쏟을 것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성찰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 6. 새로운 슬로건,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지역을 키운다.”

지역이 인재를 키우고 보살피면, 그런 지역 인재가 다시 지역을 키우고 보살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의 주민과 학생 대다수는 우리 지역이 인재를 키워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sup>9</sup> 지금껏 지역에 수많은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지역 교육의 도약을 이끌 유능한 교사와 미래형 교육 프로그램에 제대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지역 공교육이 전국 경쟁력은 물론, 영월 정선 등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도 뚜렷한 경쟁력이나 차별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적극적인 대안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학생들의 교육적 고민은 해소되지 않고 그들의 교육 선택권만 제한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지난 투쟁은 절대로 폄하할 수 없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힌 현실과 맞서 싸우다 보니, 좀더 긴 안목을 가지고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지역은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에는 부적절한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미래를 위해서, 꿈을 위해서 지역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 신문 <즈문소리>, 2015.5. 창간호, p.8)

그러므로 더 이상 공교육의 변화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당장 교육의 모순을 느끼고 있는 주민 학생들의 절실한 관점에서 지역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지역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경쟁력

---

미래를 책임질 창의적인 인재를 지역민의 손으로 키워내겠다는 저희들의 무모한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겹지만, 아이들을 위해 멈추지 않겠습니다.” (송현숙, “작은 숨 모여 큰 바람”, 지역 교육 신문 <즈문소리>, 2015.5.16. 창간호, p.8)

<sup>9</sup> 2012 년 <교육의식 조사>에서 주민의 90%와 학생 75%는 지역이 인재를 키워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3.3 기념사업회, <평가보고서>, 2012., p.14)

있는 교육 기관 설립에 대한 공감대와 요구가 커져 가고 있다. 주민들은 지역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이 살아갈 새롭고 다양한 활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믿고 있다.<sup>10</sup>

### 고정관념 깨기 : 공립학교와 동문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 교육에 대한 지원 사업은 앞으로는 좀더 뚜렷한 방향과 목표 안에서 통합되고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그것의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중심축은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경쟁력 있는 교육 기관의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11</sup>

지역 인재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학교를 만들지 못할 이유도 없다. 국가가 국립학교를 만들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역도 미래 경쟁력을 위해 지역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학교를 당연히 세울 수 있다. 이 또한 지역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새로운 학교를 말하면 마치 지역 교육을 부정하는 불온한 생각인 양 뼈뺀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비현실적인 공상쯤으로 여긴다. 지역 교육이 수십 년째 표류하는 것을 뻔히 지켜 보면서도 말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국가 차원의 일이지 결코 지역 수준에서 긴급히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해결책이라면 수많은 공립학교가 이미 있는데, 국가는 무엇 하러 자사고를 장려하고 국립학교를 따로 만들고 대안학교를 허용하겠는가? 현재를 관리하기에도 벅찬 공립학교와 항상 발령 대기 상태에 있는 외지 교사들에게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그림을 보여달라고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무리다.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스스로 교육의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일을 해줄 수 없다. 나라가 세우는 국립 학교가 있다면, 지역민이 세우고 운영하는 민립학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다.

지역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한다면, 지역 공립학교나 동문 눈치 보기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폐광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지역 교육 발전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은 공립학교나 동문회 중심으로 지역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출신학교가 다른 주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이다. 출신학교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교육에 대한 고정 관념을 벗어나, 폐광 지역 주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인물들을 같이 키워나간다는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인재 교육은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등 폐광 지역 주민들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며 지역의 새로운 활력과 관련된 미래 투자 사업이다.

<sup>10</sup> 2012 년 <교육의식 조사>에서 응답 주민의 68%와 학생들의 50%가 “지역 기반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이 살아갈 새롭고 다양한 활로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답했다. (3.3 기념사업회, <평가보고서>, 2012, pp.8-11.)

<sup>11</sup> 2012 년 <주민 교육의식 조사>에서 지역 학부모의 74%는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 있는 교사’와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3.3 기념사업회, <주민초청 연속토론회 평가보고서>, 2012, p.14)

### 우리가 만드는 미래 : 지역의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자

최근 지역 교육 신문 <즈문소리>의 창간을 계기로 지역 주민들과 리더들 사이에 지역 인재 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도 희망적이다. 물론 교육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교육만능론’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역 바깥에서 오히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주민교육협동조합이라는 지역 교육의 귀한 자산을 잘 지키고 가꾸어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떠받치는 굵은 기둥 하나는 준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자.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많은 것들을 이루어 왔고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놀라운 역동성의 원천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힘을 믿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 지역 교육의 획기적 변화를 향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앞으로 우리 지역이 ‘폐광지역’이라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주민주도 교육혁신 지구’, ‘지역 인재 양성 특구’, ‘생태-문화-교육 융합특구’, ‘제 1 호 협동조합학교 탄생지역’와 같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 교육을 바꾸는 주민의 힘, 지역 주민이 키우는 지역 인재의 요람! 지역 교육을 살려 지역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이 땅의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당할 차례다.

“미래는,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드는 행동은 만드는 사람과 그 목적지를 모두 바꾸어 놓는다.” – John H. Schaar

(2015.7.10.)

## 〈참고문헌〉

### 간행물

- 3.3 기념사업회, 〈주민초청 연속토론회 평가보고서〉, 2012.  
천개의 숨, 지역 교육 신문 〈즈믄소리〉, 2015.5.16. 창간호.

### 기사

- 김광희, “초·중생 상위 90%, 고교는 외지로”, 강원일보, 2004.8.20.  
김광희, “고한·사북·남면 장학사업 활기”, 강원일보, 2005.3.2.  
김광희, “정선 폐광지역 장학사업 든든”, 강원일보, 2005.6.16.  
김광희, “지역인재 외지유출 막자”, 강원일보, 2006.1.19.  
김광희, “뉴스 플러스 : 시·군 장학사업 정착”, 강원일보, 2006.2.13.  
김광희, “정선 장학사업 활기”, 강원일보, 2007.4.10.  
김광희, “정선 폐광지 교육환경 개선 총력”, 강원일보, 2007.5.15.  
김광희, “장학사업 기금만 많으면 뭐하나”, 강원일보, 2007.6.5.  
김광희, “사북 학교 통·폐합대책위 추진”, 강원일보, 2007.11.9.  
김광희, “전국 10 위권 내 대학 가면 4 년내내 전액 장학금 지급”, 강원일보, 2008.2.21.  
김석만·이규호, “폐광지역 교육 개선 6 년간 1,002 억 투입”, 강원일보, 2008.1.21.  
김영석, “통합 사북초 학교 이전 첫 수업”, 강원일보, 2014.8.26.  
류재일, “사북장학회 수혜폭 확대...올해부터 인센티브 지급 등”, 강원일보, 2009.1.28.  
박용근, “농어촌 자녀 희망 vs 공교육 위축... ‘지자체 공립학원’ 논란”, 경향신문, 2007.12.10.  
방기준, “사북장학회 장학금 전달”, 강원도민일보, 2011.3.31.  
방기준, “정선 사북장학회 지역인재 양성 산실”, 강원도민일보, 2012.4.2.  
배연호, “강원랜드 장학금,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보다 적어”, 연합뉴스, 2013.10.7.  
이준호, “‘2015 강원랜드 해피스쿨’ 지원금 전달식 가져”, 업코리아, 2015.6.12.  
진민수, “20 년간 도내 초교 420 개 통폐합·폐교”, 강원일보, 2012.1.26.  
최대현, “지자체 공립학원 교육기회 평등권 침해”, 교육희망, 2008.5.29.  
하중천, 서근영, “폐광지역 교육환경 열악...강화 정책 필요”, 뉴스 1, 2015.6.3.  
홍춘봉, “정선군,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뉴시스, 2015.3.1.  
홍춘봉, “정선 사북장학회, 장학금 기탁 잇따라”, 뉴시스, 2013.12.31.  
“사설 : 지역인재 조기 이탈 ‘강원도 미래 없다’”, 강원일보, 2008.9.17.  
“사설 : 초·중·고생 탈강원 막는 해법 없는 건가”, 강원일보, 2009.12.1.  
“사설 : 청년인구 격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관건”, 강원일보, 2010.12.23.